

■ 아프간 피랍사태 구상권 행사 범위·액수 주목

정부-교회, 금액차 클뎀 소송 갈수도

샘물교회 측 항공료·치료비 등 부담 선제의... '몸값' 은 제외 될 듯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피랍자들과 교회측에 사태 해결과정에서 소요된 재판비용을 구상(求償)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음에 따라 어느 범위까지 구상권이 행사될 지가 관심이 되고 있다.

◇금액 차이 크면 소송 가능성 = 정부는 '실제 부담원칙'에 따라 국가가 낸 항공료와 시신운구 비용, 후송비 등을 구상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랍자들이 속한 분당 샘물교회측은 석방자 귀국에 소요되는 항공료와 희생자 운구비를 전액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양측이 적정한 타협을 이루면 구상액수도 쉽게 결정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정부는 공무원 출장비용 등 교회측이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구상 여부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양측의 견해차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정부가 피랍자측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재판이 조정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적절한 구상액을 판단하는 일은 법원의 몫으로 넘어간다.

이는 사법부가 해외에서 발생한 자국민 피랍사건에 대한 국가의 금전적 책임 범위를 정해주는 것이어서 유사사태 발생시 정부가 고려할 중요 판례가 된다.

◇'몸값' 청구는 어려울 듯 = 일본 정부도 2004년 이라크 무장단체에 납치됐다 석방된 일본인 3명에게 항공료와 호텔 숙박료 등 240만엔을 공동 청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가가 지불한 '석방 대가'를 당사자에게 구상한 국내의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으며 이는 구상권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피랍자들이 아프간에 입국할 때는 '여행금지국' 규정이 없었으므로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손해배상 차원에서 이미 지불된 몸값을 갚으라는 논리는 성립되기 어

렵다. 따라서 인질 몸값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행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사무관리 조항 적용할까' = 다만 국가가 민법상 사무관리 조항을 들어 피랍자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치른 몸값을 갚으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는 관심거리가 된다. 민법상 의무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가 본인(관리대상자)을 위해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에는 본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가 피랍자들과 계약을 맺는 등 구체적인 의무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정부가 피랍자들을 위해 '의무없이' 쓴 몸값을 상환할 권리가 있는게 아니냐는 견해도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반면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포괄적인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몸값을 되받아낸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탈레반이 석방한 한국인 인질들 중 유정희씨가 29일 오후 아프가니스탄 기즈니 시 외곽에서 적신원사 직원들에게 인계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몸값' 줬나 안줬나... 說만 무성

378억원 지불 소문 나돌아

정부가 탈레반측의 거둬낸 부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탈레반에 인질 석방을 위해 몸값을 지불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당초 발표한 인질 석방 조건은 크게 한국군 연내 철군과 아프간 선교 중지 두 가지, 한국군 연내 철군은 정부가 인질 사태 초기부터 이미 천명한 내용으로서 협상의 결실들이 되지 못했고 선교활동 중지 요구 역시 아프간 여행이 금지된 상태여서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이었다.

또 탈레반이 인질 살해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인질-수감자 맞교환' 요구를 갑자기 철회한 것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탈레반측의 부인에도 '몸값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외신들도 몸값 지불설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탈레반이 1천만달러(약 93억원)를 요구했고 한국측이 50만달러(약 4억6천만원)까지는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한국

및 일본 언론의 보도를 소개하기도 했다. 타임은 또 국내 전문가를 인용해 이번 사태 해결 과정이 나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랍어 위성방송 알-자지라도 한국 정부가 인질 석방을 위해 탈레반에 몸값을 지불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고 전했다. 알-자지라 카불 특파원인 엘린 피셔는 "정확한 액수를 밝힐 순 없지만 한국측이 탈레반에 현금을 건넸다고 아프간 고위 당국자가 말했다"면서 "약 2천만파운드(약 378억원)를 지불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샘물교회 아프간 봉사단 철수 완료

아프간 내 한국인 100여명 남을 듯

아프간에서 납치됐던 한국인 인질 전원의 석방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분당 샘물교회는 아프간 지역의 선교, 봉사단 철수를 모두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교회 권혁수 장로는 "교회 측에서 파견했던 의료·교육 봉사단이 그간 현지에서 벌여왔던 활동을 모두 정리하고 지난 24일 최종적으로 귀국했다"고 밝혔다.

권 장로는 "아프간 피랍사태가 발생한 직후부터 현지 봉사활동 중단을 결정하고 점진적으로 봉사단 철수를 추진해왔으며 지난 주 임현주씨 등 피랍자 3명을 제외한 9명 모두의 철

수가 끝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당초 피랍사태 후 여타 봉사단원의 철수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현지에서 오랜 기간 봉사활동을 해온 교인들의 거취 정리 등에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다"며 "앞으로 아프간 등 위험지역에서의 선교·봉사활동을 잠정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와 탈레반의 석방 협상 조건대로 국내 다른 단체에서 파견했던 봉사단도 31일까지 현지 활동을 중단, 귀국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의 아니게 국민과 정부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덧붙혔다. /연합뉴스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태가 이르면 30일 잔여 인질 7명 석방과 함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태의 여파로 아프간 내 한인 사회는 절반 규모로 축소될 전망이다.

석방 합의가 이뤄진 지난 28일 탈레반 측은 아프간 내 기독교 선교 금지, 한국군 연내 철수 등과 함께 '아프간 내 한국 민간인의 8월 내 전원 철수'도 석방조건에 포함됐다고 언론에 밝혀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일 경우 한인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단 원칙적으로 석방 조건은 선교금지 및 한국군 철

수 등 2가지며, 교민 철수와 관련된 탈레반 측의 주장은 새로울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아프간을 새 여권법에 따라 허가없이 입국할 경우 처벌받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다 이어 31일까지 예외적 체류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이들을 제외한 현지 한국인 가운데 독신자는 이달 10일까지 가족이 있는 사람은 이달 31일까지 각각 철수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은 31일 이후 동·다산 부대원을 제외하고 약 100여명의 한국인이 현지에서 계속 체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정상회담 선발대 내달 25일 파견

오는 10월 2~4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선발대가 내달 25일 파견된다.

이관세 통일부 차관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선발대 파견은 회담 7일전인 9월 25일 하겠다"면서 "현재 제반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호·의전 등 분야별 행사 준비를 관문점 연락관 접촉과 문서교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면서 "차량 이용 문제, 도로·교량 현황 등을 협의하고 선발대가 올라가서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정상회담 수행원과 관련, "(언론을 제외하고) 공식, 특별, 일반 등 모두 150명으로, 구체적인 인선과정에 있다"고 소개하고 "준비 기획안과 추진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교원임용고시의 모든것! **꼭내영교육학 문제풀이특강**

최고의 문제풀이 강사, 최강의 문제풀이 강사, 최강의 문제풀이 강사, 최강의 문제풀이 강사

www.panyang.com

529-0090

산행안내

다양한 산행 코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 페이지.

cafe.daum.net/furumin

마늘주사 후루민을 굿바이요

http://cafe.daum.net/furumin

마늘주사 후루민에 푸지아에 병 약한 환자님도 피부 부진지름 유실시도

082-83-5883